

양계남 교수 추모전 ‘월아 나비가 되어’

月娥

16일까지 모교 조선대미술관 시기별 대표작 60점 등 선배 전남권 최초 한국화 여성교수 1주기 기념해 삶의 흔적 추억

지난해 별세한 양계남 교수 1주기 추모전 ‘月娥 나비가 되어’가 오는 16일까지 광주 조선대학교미술관에서 개최한다. ‘月娥(월아)_나비가 되어’는 1976년부터 2009년까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작품 활동과 후학 양성에 성심을 다한 양계남 교수의 1주기 추모전이다. 그의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그의 삶과 흔적을 함께 기억하고자 모교인 조선대학교와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뜻을 모아 기획한 전시로 눈길을 끈다.

고 양계남 교수는 대한민국 보성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재 허백련 선생에게 14년 동안 사사를 받은 제자다. 특히 의재 선생의 예술세계를 기틀로 본인만의 예술세계관을 가지고 호남 남종화의 명맥을 잇는 지역의 원로 한국화가이다. ‘월아(月娥)’는 양계남 교수의 호로, 허백련 선생이 직접 지어 준 이름이다. 나비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그의 예술세계를 표



작업 중인 고 양계남 교수.

현했다.

주요 작품 활동으로는 베를린, 파리, 뉴욕, 콜롬비아(미주리), L.A., 서울 및 광주에서 19회의 개인전을 열고, 1992년 화랑미술제(서울), St'art'99(프랑스), Art Paris'99(프랑스) 등 아트페어를 비롯해 국내외 400여 회의 그룹전에 참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2016년 광주시 문화예술상 ‘의재



양계남 작 ‘파라다이스’.

(주)와사비아 제공

허백련 미술상’을 수상했다.

교육활동으로는 전남권 최초의 한국화 전공 여성교수로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 콜롬비아에 있는 미주리대학교(1990~1991)와 미국 뉴욕의 포리테크닉대학교(2003~2004) 객원교수로 연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가치들을 수용했다.

동양과 서양, 이러한 그의 이력이 잘 드러난 작품이 한지에 채색한 ‘파라다이스(1994)’다. 이 작품은 양계남 교수가 거의 2년을 생각하고 구상한 자료들을 모아 미국 캘리포니아 후배 집에서 1년 가까이 작업해 완성한 작품이다. 문인화에 해와 달·불로초·학·구름·복숭아·사슴·연꽃을 얹은 천상의 인물 등이 등장한다. 배경으

로는 난꽃을 그려 잔잔한 가운데 움직임을 연출했다.

그는 2004년 월아미술상, 2005년 올해의 미술상을 제정해 지역작가들에게 창작 지원금과 전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힘써왔다. 2010년 봄, 정년퇴임 후 2023년까지 조선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꾸준히 발전 기금을 기부했으며 월아미술상은 고인의 뜻을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의 유작 가운데 시가별 성향을 대표하는 작품 60여 점과 올해의 미술상, 월아미술상 수상자를 비롯한 선후배 작가들 46인의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양계남 교수의 화업을 돌아봄과 동시에 그와 삶의 발자취를 함

께했던 이들의 애뜻함을 함께 나누며 그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측은 “양계남 교수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들을 통해 그가 생전에 꿈꿨던 세상을 함께 되짚어봄으로써, 다시 한 번 고인의 삶과 예술혼을 기리며 동료 교수 및 선후배 작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울 유족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월아 양계남 화백의 삶과 예술이 더 널리 알려지고 더 오래 기억된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다”며 “양계남 화백을 사랑했던 이들의 애뜻함과 그리움을 함께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현대무용, ACC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어렵게 여겨왔던 현대무용 공연 창작과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17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현대무용을 주제로 한 공연 창작 워크숍 ‘ACC 춤추는 극장’ 1기 프로그램을 예술극장 아틀리에1에서 진행한다.

ACC는 공연과 현대무용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ACC창·제작 공연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공연 창작 워크숍을 진행한다. 첫 번째 시리즈인 ‘ACC 춤추는 극장’은 어려운 현대무용 공연을 관객이 더 즐겁게 관람하도록 돕는 관객친화 프로그램으로, ACC가 발굴한 예술가와 국내 유명안무가가 참여해 동시대 예술 현대무용을 소개한다.

지난 2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ACC 춤추는 극장’ 1기는 현대무용 공연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주제로 이론에 간단한 실습을 더한 ‘현대무용 기초강좌’다. 현대무용 공연의 스토리부터 음악, 안무, 무대구성까지 현대무용 공연 창작 과정을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1기의 1~6차시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마지막 7차시는 1기 과정을 마무리하는 중간 발표회로 오는 10월 25일에 열린다.

오는 11월 16일에 시작하는 ‘ACC 춤



추는 극장’ 2기는 ‘현대무용 안무 창작 실습’ 과정으로 참여자들이 안무가와 함께 쉬운 현대무용 안무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으며, 총 7차시로 구성돼 있다. 강의를 거쳐 만들어진 시민들의 창작 작품은 내년 1월 17일 결과발표회에서 공개된다.

‘ACC 춤추는 극장’ 1기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정원은 20명, 참가비는 2만1000원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지역 예술가와 함께 선보이는 첫 공연 창작 정기 워크숍”이라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앞으로 관객 친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夜밤에 즐기는 과학관 썸파티’

23일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3일 ‘술(酒)’을 주제로 성인들을 위한 사이언스나이트 페스티벌 ‘夜밤에 즐기는 과학관 썸파티’ 행사를 개최한다.

8회차를 맞이하는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은 성인 관객들을 위한 국립광주과학관 대표 과학문화 행사 중 하나다. 성인들이 과학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참여는 오는 21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페스티벌은 케이터링을 시작으로 천체투영관에서 ‘주류의 과학’이라는 흥미로운 강연이 진행된다. 이후 다양한 실험화석과 생동감 있는 공통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통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 관람과 S.O.S(Science on a Sphere)를 통해 2만km 상공에서 바라본 지구를 알아보는 시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카테일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베스트 드레서를 찾아라, 포토존, 팽 없는 뽀기체험 등 짝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또 지역 업체인 오비맥주 후원 등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된다.

한수민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이번 행사는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기 위해 ‘술(酒)’을 컨셉으로 진행되는 성인들을 위한 과학문화행사로 참여자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8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썸1980’ 18호 발행... 지역영화계 소식 담아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광주영화비평지 ‘썸1980(편집장 정찬혁)’ 18호를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썸1980 18호에는 지난 6월 성황리에 막을 내린 13회 광주독립영화제, 2024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올해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한 광주독립영화관 서포터즈

이글루 등 지역영화계의 현황을 담은 기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2024)’를 완성한 김경자 감독의 인터뷰 ‘기억의 끝에는 기억하는 얼굴이’와, ‘내 이름(2024)’을 만들어 내기까지 송원재 감독이 겪었던 과정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딤



포커스’가 실려있다.

‘썸1980’ 18호의 표지는 정다운감독의

‘땅에 쓰는 시(2024)’를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광주 출신 청년작가 김유나가 완성했다.

관객 참여 코너 ‘픽앤리슨’에서 ‘땅에 쓰는 시’에 대한 관객들의 감상평을 확인할 수 있다. 감상평 참여는 ‘썸1980’ 공식 인스타그램(@scene_1980)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자에게는 광주독립영화관 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썸1980’은 매 호 평균 80페이지 분량

으로 1000부 인쇄된다. 광주·전남 포함 전국의 영화기관, 영화제, 영화단체,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정기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광주독립영화관, 광주극장을 비롯해 책과 생활, 소년의 서, 이것은 서점아 아니다, 동명책방 꽃이피다, 너른벽(경주), 보안책방(서울) 등에 무료로 배포 중이다.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썸1980’ 전 권을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